관광학연구 제36권 제2호(통권 98) pp. 159~178 한국관광학회 2012. 3.

도보여행길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제주 올레길 개발지지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애착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n Study of the Impact of the Residents' Perception toward Walking-tour Course Development on Jeju Ollegil Development Support: A focus on a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박 영 아**
Park, Young-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impacts) toward walking-tour cours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support, and to investigate whether local resident attachment plays a moderating role in its relationship. A total of 3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local residents who live in proximately to the 7 and 8 Je-Ju Olle course. The usable 269 samples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th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antecedents(economical · cultural impacts and environmental impact) and consequences support for Ollegil development; Second, support for Ollegil tourism development was not influenced by social impacts; Lastly, it is identified that local attachment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a and cultural impacts and support for Ollegil development, as well as between environmental impact and its support. The paper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for sustainable and successful development of walking-tour tourism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discussed.

핵심용어 (Key words) : 지역민 인식(Residents' perception), 애착심(Attachment), 개발지지(Development support), 제주 올레길(Jeju Ollegil)

---

* 본 논문은 2011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관심분야: IT 마케팅). e-mail: yapark@cu.ac.kr

I. 서 론

제주도 올레길은 2007년 처음 개장 시 3000명에 불과하던 방문객이 2010년 10월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59만 4000명으로 2009년의 2.4배에 달해 국내에서는 도보여행 코스로써 최고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제주 올레길이 '길' '걷기' 등의 트랜드와 열풍을 창조해 내면서 정부 각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생태를 활용한 도보 여행 코스 개발을 시작했으며, 특히 제주 올레길은 2007년 제 1코스가 개장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12월에는 총 22개 코스가 개발 되는 등 새로운 관광소재로서의 잠재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이지은, 2010).

관광개발에 있어 대부분 지역민들의 지지가 중요하며 특히, 제주 올레길 개발과 성공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이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개발 초기 올레길 찾기에서 올레길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고 당시 올레길 개념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밭주인, 목장주인과 같은 마을 사람들의 설득 및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백경진, 201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의사는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유치, 사업성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관광객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유익한 문화적 영향, 경제비용 등 관광개발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Sirakaya, Teye, & Sonmez, 2002; Kang, Lee, Yoon, & Log, 2008, Deery, Jago, & Fredline, 2011). 따라서,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인식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의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Gu & Ryan, 2008; 허향진 · 현용호 · 허성철, 2005; 양성수 · 허향진 · 서용건, 2009).

특히,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지지의사는 장소에 대해 부여하는 애착심에 따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Gu & Ryan, 2008; 이충기 · 강수경, 2008; 김영미 · 김미주 · 김성섭, 2010; 정봉섭 · 여정태 · 김재호, 2011). 다른 관광지 보다 제주도 올레길은 관리 운영과 올레길 관련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가 지역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백경진, 2010) 이들의 애착심은 제주 올레길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도보여행자 및 제주 올레길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박영아 · 현

용호, 2010; 박시사·노경국, 2010; 정철·노경국·문성종, 2011), 도보여행지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올레길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지역주민들의 애착심정도에 따른 개발 지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주 올레길 개발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올레길 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둘째, 지역민들의 애착심이 이들 관계에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 시청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제주 올레길을 다녀간 99%의 사람들이 다시 올레길을 찾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백경진, 2010) 특히, 제주 올레길이 대중관광으로 급속히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의 인식 및 애착심을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개발지지 의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유사한 도보여행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한 도보여행길 관광개발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주 도보여행길 개발과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국내 도보여행은 제주 올레길이 알려지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여개 도시에서 100여개의 코스가 생겨났으며 제주권의 올레길, 지리산권의 둘레길, 충청권의 백제역사도보길과 불교문화체험길, 강원권의 바우길, 대관령 옛길, 전라권의 질마재길과 마실길, 경상권의 대구의 올레코스, 낙동정맥, 부산 해안길 등이 개설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처음 제주 올레길 개발당시는 올레길에 대한 개념조차 서지 않아 지원은 매우 열악했으며 사유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다. 올레코스 개척의 원칙이 사유지는 올레가 소유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조율하는 것이었고 차츰 제주올레가 각광을 받으면서 마을 주민들도 길을 내는데 동참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주 올레길의 컨셉을 담은 마을길을 미리 내놓고 기다리는 마을도 늘게 되었다(백경진, 2010).

이렇듯 성공적인 관광개발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호의적인 태도, 지지,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주민의 인식이나 태도가 관광객들의 방문지 선택이나 재방문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현재 진행 혹은 계획 중인 관

광개발사업의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허향진 외, 2005; Kang et al., 2008).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실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의 지원과 지지야말로 관광개발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Gu & Ryan, 2008; 양성수 외, 2009; Deery et al., 2011).

최근의 관광 추세가 수동적인 관람형 여행에서 모험, 탐구, 배움을 수반하는 체험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어 생태, 문화 중심의 체험형 도보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 관광객들의 수요에 따른 도보여행 길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전국 도보여행 및 제주올레길 관광객이 일반적인 여행행태의 수요를 초과하는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제주 올레길은 2014년 총 450km 이상의 30개 코스가 개장될 예정으로 제주 올레길 완보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 체류해야 하는 코스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2. 지역민 인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

지역의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이해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관광산업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Diedrich & García-Buades, 2009). Butler(1980)의 Tourism Area Life Cycle (TALC)에 따르면 관광개발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영향도 증가한다고 하였고, 개발의 마지막단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능가하고 마침내 관광지는 관광시장에서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지역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관광지의 성공과 지속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Harrill, 2004; Andereck, Valentine, Knopf, & Vogt, 2005). 즉 관광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지역주민의 태도야 말로 관광객들의 방문지 선택이나 재방문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Sheldon & Var, 1984) 현재 진행 혹은 계획 중인 관광개발사업의 성공에 있어 지역민들의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 반영은 지역사회의 관광개발 수준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utler, 1980; Ap, 1992; Sirakaya, et al., 2002).

관광영향은 관광자원 및 시설의 물리적 개발 혹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의 효과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들이 주관적인 판단이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혹은 지각이다 (이승구 · 최규성, 2006). 관광개발의 효과로 파생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지역주민의 지각 혹은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하고 있다(Andereck et al. 2005; 양성수 외, 2009).

지역사회의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져 연구되어 왔다.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은 관광산업 지속을 위한 자원고갈, 관광객으로 인한 물가인상, 지역민들의 일시적인 관광관련 일자리 등이 있으며,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으로서는 지역민들이 고용창출, 투자, 지역사회의 이익창출, 지역주민들이 세금수익, 개인수입 증가, 생활수준 향상, 일자리 향상 등이 있다(Rigall-I-Torrent, 2008). 문화체육관광부 (2010)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도보여행길 개발로 인해 제주지역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도소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타지역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광의 영향중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주민들은 강한 지지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밝혀졌다(Liu & Var, 1986; Haralambopoulos & Pizam, 1996; Andereck et al. 2005).

또한 경제적 이득이 지역민들의 관광개발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관광개발이 습관, 일상적인 생활, 사회적 삶과 규범 등 지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김영미 외, 2010). 제주 올레길 개발을 위하여 탐방로와 접근하는 대중교통시설의 정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한 도보관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 공공보건의 증진, 사회적 편의 시설 개선, 여가활동의 기회 등이 있으며, 반면 각종 범죄나 지역 지교통 혼잡 등 사회적 부작용이 유발, 사회적 불안 야기, 소비주의의 팽창, 전통적인 가치관 변화등과 같은 수도, 전기, 통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충기 · 강수경, 2008; Deery et al., 2011).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은 개발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Kang, Long, & Reisinger, 2010).

제주 올레길 개발은 제주 지역 고유한 정체성을 창출하여 국.내외 지역과 차별화하고 제주올레길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주의 자연, 문화가 접목되어 제주지역 고유 정체성을 들어내고 있다. 또한 타지역 관광개발에 비해 제주도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관광객들과 교류하고 접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로 인한 문화적인 영향은 문화의 현대화, 전통문화보전, 관광객과의 접촉으로 인한 상호 문화 교류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반면에 지역민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손실, 전통문화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다(Andereck et al., 2005; Rigall-I-Torrent, 200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지역민들이 관광은 문화적 활동과 문화적 유산의 증진 및 레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여 긍정적인 문화적 영향은 지역민들의 관광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하였다(Liu & Var, 1986; Gilbert & Clark, 1997).

많은 관광활동들이 환경적인 자원의 손상과 파괴,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반면에 관광개발에 따른 경관이 좋아지거나, 주변 환경개선, 청결한 환경 유지 및 환경적인 가치 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역할 및 자원을 보존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제주올레는 길가에서 마주친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괴롭히지 않기, 과일껍질도 길가에 버리지 않기 등 제주올레 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 보호는 지속적인 관광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Dewhurst & Thomas, 2003; Erkus-Ozturk & Eraydin, 2010). 문창현(2007) 연구에 의하면 전통문화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 지역민들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관광개발 태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철원·이태숙, 2010; Lee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제주올레길 개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은 올레길 개발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긍정적인 지역민의 인식이 올레길 개발지지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애착심과 개발에 대한 지지

애착심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인 결속과 연결을 의미한다. 여가 연구가들은 애착심을 레크레이션 경험의 심리학적인 요소로서 연구하였으며 애착심은 지역정체성과 지역의존성으로 뚜렷하게 나눠진다고 했다(Hidalgo & Hernandez, 2001). 지역정체성은 어떤 장소에 대한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애착을 의미하고 지역의존성은 어떤 한 장소에 대한 기능적인 애착을 의미한다(Gross & Brown, 200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애착심이 크고 고취될수록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성수 외(2009)는 지역 애착심은 지역주민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관광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애착심있는 지역주민과 교류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충기·강수경(2008)은 강원랜드 지역민들의 애착심에 따라 관광영향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미 외(2010)는 개발이후 사회·문화적인 영향 요인을 높게 인식한 주민일수록 그들의 애착심이 개발 지지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애착심에 따라 카지노개발에 대한 지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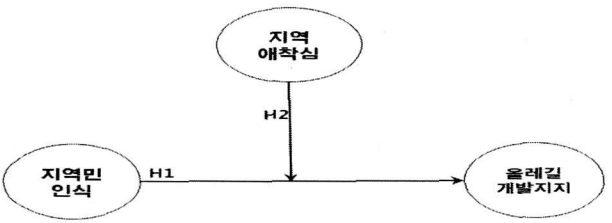
관광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는 집단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은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 올레길처럼 관광객의 수요로 올레길 코스의 지속적인 확장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관광영향을 인식하는 지역민들의 애착심이 관광개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도보여행 인기와 수요에 의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애착심을 개발지지에 대한 선행요인으로만 보아 애착심이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개발지지에 대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착심은 관광개발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애착심에 따라 지역민들이 관광영향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본 연구에서는 애착심을 이들 두 변수간의 조절변수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애착심은 관광영향과 개발지지간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변수설정

〈그림 1〉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은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과 올레길 개발 지지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애착심 조절효과를 측정하고자 제안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경제적 영향 4문항, 사회적 영향 4문항, 문화적 영향 3문항, 환경적 영향 3문항, 애착심 4문항, 올레길 개발지지 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영향 항목은 Kuvan & Akan(2005), 사회적 영향은 Ko & Steward (2002)와 Teye Sonmez & Sirkaya(2002), 문화적 항목은 Teye et al. (2002)와 Dyer, Gursoy, Sharma & Carter(2007), 환경적 영향은 Ko & Steward(2002), 애참식은 Gursoy & Rutherford(2004)의 연구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올레길 개발지지는 Kang, Lee, Yoon & Long(2008)의 연구에서 도출한 후 수정되었다. 측정방법으로는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 매우 그러함, 1= 전혀 그러하지 않음)를 사용하였다.

2. 자료의 습득

예비조사는 제주도 올레길 7코스와 8코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 중 제주도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본 조사는 7코스와 8코스 올레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7코스와 8코스는 올레길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코스들로써 알려지고 인기가 많아(이지은, 2010)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서귀포시에 위치한 7, 8코스와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동질성 및 이질성과 관련하여 조사원들이 응답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응답해준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주어졌으며 총 350부의 설문이 배포되어 300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중 무응답치가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269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정 영향의 인식이 올레길 개발 지지와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애착심은 이들 관계에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SPSS 15.0과 AMOS 5.0이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2.8%, 여성이 47.2%로 구성되어 있고, 20대와 30대 지역민이 5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은 42.8%를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가 4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응답자의 대부분의 전문대졸업 이상(78.2%)이었으며. 결혼을 한 지역민이 58.0%로 나타난 반면 미혼자는 31.6%로 나타났다.

2. 모델 구성요인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표 1〉은 본 연구의 연구 모델과 관련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varimax 방식에 따른 주성분 요인분석을 도입하였고,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EFA를 통해 공통성 수치가 0.4이하인 항목들과 요인적재치가 0.5이상으로 요인추출기준을 적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표 1〉의 기준의 따라 '올레길 개발로 인해 우리 지역의 공공서비스 질이 나아졌다', '올레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전적 후원을 할 것이다' 라는 3항목이 요인 적재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거되어 '경제적 · 문화적영향', '지역애착심', '환경적영향', '올레길 개발지지', '사회적영향'으로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7를 넘어 권장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탐색요인 모형적합도 결과 KMO=.905 Barlette's test=5777.779 ($p<.01$)에 의거 사후 분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단계로 모델 구성요인들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같이, 다른 요인에 중복 적재된 변수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기준인 총합적 알파계수(Composite α coefficient)가 0.7을 상회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0.5를 넘어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요인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를 평가 하기위한 전반적 모델 적합도를 측정하는 x^2값은 표본수가 200이 넘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와(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귀무가설인 'H_0=표본과 공분산 조합이 다르지 않다'가 기각된다.

〈표 1〉 구성 모델에 대한 탐색 및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요인명 (α)	변수	EFA 적재치	공통성	아이겐값	CFA 적재치	C.R.	AVE
경제적·문화적 영향 (.910)	올레길은 우리지역 경제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다	.790	.749	8.523 (40 58)	.789	-	.611
	올레길 개발로 인해 마을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781	.710		.784	12.44**	
	올레길 개발로 인해 타 지역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760	.701		.796	12.62**	
	올레길 개발로 인해 우리 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736	.724		.822	13.03**	
	올레길 개발로 인해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714	.697		.811	12.86**	
	올레길 개발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고 향상 시킨다	.711	.624		.755	11.98**	
	올레길 방문객과의 상호교류는 유용하다	.636	.662		.713	12 51**	
애착심 (.851)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많이 섭섭할 것이다	.785	.750	2.793 (13.30)	.823	-	.593
	내 지역이 내 집처럼 느껴진다	763	.655		.793	14.20**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38	.686		.787	10.92**	
	내가 속한 지역에 만족한다	.702	.673		.668	12.85**	
환경적 영향 (.867)	올레길 개발은 우리지역 환경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917	.881	1.563 (7.44)	947	-	.707
	올레길 개발은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지역의 모습을 향상시킨다	.885	.845		.897	12.19**	
	올레길 개발은 공공사회자본 시설 수준을 향상 시켰다(식수, 전기, 전화시설 등)	.786	.679		.647	12.17**	
올레길 개발지지 (.828)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841	.734	1.342 (6.38)	.885	-	.712
	우리 지역의 현안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759	.740		.800	8.98**	
사회적 영향 (.799)	올레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친분을 쌓은 적이 있다	.770	.786	1.104 (4.32)	.719	-	.588
	올레길 방문객들과의 만남을 즐긴다	.568	.683		.812	11.25**	

확인 요인 분석에 대한 전반적 적합도의 x^2값 (209.856, $p<0.01$)이 유의미하여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모델 평가시 보조적 모델 적합도를 사용해야 된다. 보조적 적합도 수치들인 Standarized RMR과 RMSEA는 0.08이하면 좋은 모델로 판단하고 GFI, CFI, TLI는 0.9에 가깝거나 높으면 좋은 모델

로 판단한다. GFI=.921, AGFI=.892, TLI=.965, CFI=.971, RMSEA=.050, SRMR=.045로 모든 기준치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시된 5개의 요인이 최종 확인되었다.

모델 구성 개념에 대한 개념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표 2〉가 제시되었다.

〈표 2〉 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 분석

구성 요인	1	2	3	4	5
(1) 경제적 · 문화적 영향	.611*				
(2) 애착심	.538	.593*			
(3) 환경적 영향	.357	.168	.707*		
(4) 올레길개발지지	.281	.418	.069	.712*	
(5) 사회적 영향	.324	.613	.404	.247	.588*

* 해당개념의 AVE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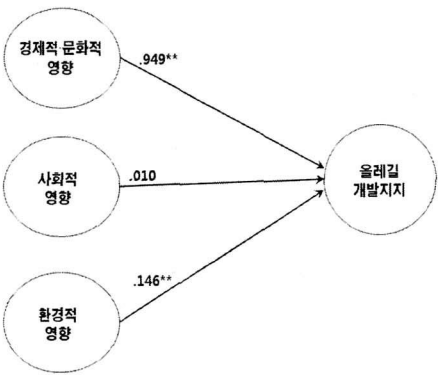
이론적 잠재개념들이 실제로 관찰되지 않고 잠재 개념들은 간접적으로 관찰변수들에 의해 측정되기 때문에 구성 개념들에 대한 타당성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Ping, 2004). 개념 타당도는 측정변수들의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로 측정이 된다. Anderson & Gerbing(1988)에 따르면 각 잠재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sqrt{AVE}$값이 잠재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보다 크면 다른 잠재요인들과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요인들 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개념간 상관 계수가 0.8를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조 모델 가설 검증

연구모델의 전반적 모형 적합도가 x^2= 249.052, d.f.=98, p=.000으로 연구 모형이 부적합함이 밝혀졌으나 보조적 적합도 수치들이 GFI=.892, AGFI=.850, TLI=.931, CFI=.944, RMSEA=.076, SRMR=.048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주 가설인 지역민 인식과 올레길 개발지지 요인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가 〈그림 2〉로 제시되었다.

지역민 인식이 '경제적 · 문화적 영향',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어 각 선행요인들과 '올레길 개발 지지'요인간의 영향계수를 살펴본바, '경제적 · 문화적 영향(ß=.949, p<.01)' 요인과 '환경적 영향(ß=.146,

p<.01)' 요인이 '올레길 개발지지' 요인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영향' 요인은 '올레길 개발지지'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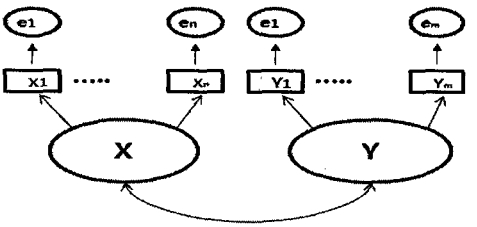
〈그림 2〉 경로 분석 결과

'경제적 · 문화적 영향'과 '개발 지지'요인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인 Liu & Var(1986), Anderreck et al.(2005), Gilbert & Clark(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으며, 또한 '환경적 영향'과 '개발지지'요인간의 영향관계를 고찰한 문창현(2007), 김철원 · 이태숙(2010), Lee et al.(201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사회적영향' 요인과 '개발지지'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던 Yoon et al(2001), Lee et al.(2010), 김영미 외(2010)의 연구결과를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지 못하였다.

4. 애착심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구조방정식모델링에 의한 잠재변수의 조절효과분석은 비선형제약(Nonliner constraint)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ing의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따른다. 이를 위해 우선 다중공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에 대한 평균중심화(Mean-centering)값을 구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측정모델을 먼저 추정한 다음, 측정모델을 통해 도출 된 모수치를 이용하여 구조모델에 해당하는 값을 고정한 후 추정하는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배병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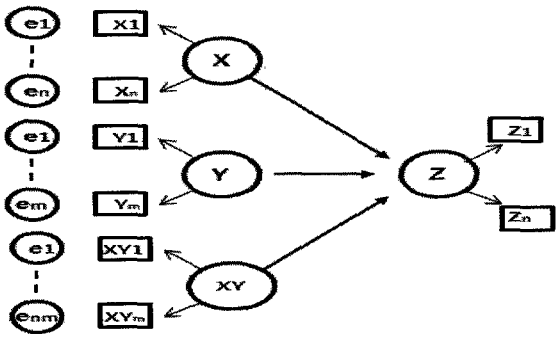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델 추정

조절요인과 이에 해당되는 관찰변수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요인의 관찰변수들과 조절변수의 관찰변수들 곱한 값을 〈그림 4〉에서처럼 구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경제적·문화적 영향의 관찰변수의 수는 7개이고 조절변수인 애착심의 관찰변수의 수가 4개이므로 상호작용항 (경제적·문화적 영향×애착심)의 수는 28개로 구성이 되어야하고 사회적영향(2개)×애착심(4개)의 상호작용항의 관찰변수는 8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적영향(3개)×애착심(4개)의 상호작용항의 관찰변수는 12개로 이루어진다. 상호작용항에 해당되는 요인적재량과 오차분산에 고정시킬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측정모델에서 얻어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량, 요인간 공분산, 요인 분산, 오차항 분산 추청치들이 요구된다. 상호작용항에 고정시킬 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배병렬, 2009).

상호작용항의 분산= Var(X) × Var(Y) + Cov(X, Y)2
상호작용항(XY)의 관찰치(X1Y1~XmYn) 요인적재량 = ß(x1y1)~ß(xmyn)
상호작용항의 오차분산(오차항 e1에 대한 오차분산값):
X1Y1에 대한 오차항 e1= (ßx1×X요인의 분산값×Y1의 오차항 분산값(e1)) + (ßy1×Y요인의 분산값×X1의 오차항 분산값(e1)) + (X1의 오차항 분산값(e1)×Y1의 오차항 분산값(e1))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된 모수치들을 고정시킨 후 〈그림 4〉와 같이 상호작용항 XY(경제적·문화적영향×애착심, 사회적영향×애착심, 환경적영향×애착심)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3〉,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3〉에 따르면, 경제적·문화적영향*애착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상호작용항이 올레길 개발지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심은 경제적·문화적영향과 올레길 개발지지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 조절효과 검증 구조모형

이에 조절효과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경제적·문화적영향(ß1=.781, p〈0.01), 애착심(ß2=.492, p〈0.01),경제적·문화적영향*애착심(ß3=-.157, p〈0.01)이 도출되어, 대립조절효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현용호·김재학, 2009).

〈표 3〉 경제적·문화적 영향과 개발참여의도 간의 애착심 조절효과

투입된 예측변수	종속변수		
	올레길개발 지지		
	β	S.E.	C.R.
경제적·문화적 영향(β1)	.781	.051	10.673**
애착심(β2)	.492	.060	7.825**
경제적·문화적 영향 *애착심(β3)	-.157	.005	-3.724**

*p〈.05, **p〈.01

〈표 4〉에 따르면, 환경적 영향*애착심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상호작용항이 올레길 개발지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심은 환경적 영향과 올레길 개발지지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조절효과의 유형을 고찰한 결과, 환경적 영향(ß1=-.099 p〉0.05), 애착심(bß=.726, p〈0.01), 환경적 영향*애착심(ß3=.194, p〈0.01)이 도출되어, 상승조절효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4〉 환경적 영향과 개발참여의도 간의 애착심 조절효과

투입된 예측변수	종속변수 올레길 개발 지지		
	β	S.E.	C.R.
환경적 영향(β1)	.099	.045	1.826
애착심(β2)	.726	.082	7.672**
환경적 영향*애착심(β3)	.194	.008	3.499**

*p〈.05, **p〈.01

〈표 5〉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애착심(ß3=.023, p〉.05)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상호작용항이 올레길 개발지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착심은 환경적 영향과 올레길 개발지지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환경적 영향' 요인을 제외한 2개의 선행요인과 개발 지지간 지역 애착심 요인의 조절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2가 부분 채택되었다.

〈표 5〉 사회적 영향과 개발참여의도 간의 애착심 조절효과

투입된 예측변수	종속변수 올레길 개발 지지		
	β	S.E.	C.R.
사회적 영향(β1)	.462	.052	5.953**
애착심(β2)	.694	.076	7.680**
사회적 영향*애착심(β3)	.023	.005	.444

*p〈.05, **p〈.01

V. 결 론

도보여행과 관련하여 제주도 올레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올레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올레길 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지역애착심이 이들 변수들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올레길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중 경제적·문화적 영향 요인이 올레길 개발 지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관광개발의 영향중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에 주민들이 강한 지지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를 뒷받침하고 있으며(Andereck et al. 2005; 허향진 외, 2005) 올레길 지역주민들이 제주 올레길 개발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생활수준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을 인식하고 있어 올레길 개발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민들은 올레길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식당을 열고 낡은 집들을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함은 물론 올레길 구석구석에서 생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판매하여 동네 상점도 도보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받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에게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긍정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인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올레길의 인기는 경제적 효과만큼이나 다른 부작용을 안고 있을 수 있다. 올레길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수요로 인해 경제적 효과만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들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보여행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올레길은 '빨리 빨리'가 아닌 '느림의 미학'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집 대문에서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골목을 뜻하는 제주 올레길이 '길', '걷기' 등의 걷기 문화 트랜드를 창조해 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올레길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올레길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보존하여야 함은 물론 순수하게 느림과 휴식, 치유의 목적으로 시작한 독특한 제주인들의 전통문화가 훼손되지 않고 문화콘텐츠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적 영향 요인이 올레길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길 개발로 인해 지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레길 개발 지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올레길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단체관광이 늘어나면서 올레길이 훼손되기도 한다. 올레길은 누구에게가 열려있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객 수를 통제할 수도 없으며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하나 둘씩 같은 곳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생태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탐방로의 훼손방지와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도보길 환경을 보존하여 지역민들이 올레길 개발 및 대중관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아 추가적인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애착심이 지역민 인식과 올레길 개발지지 간에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문화적 영향과 올레길 개발지지 간에 지역 애착심이 대립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애착심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올레길 개발에 대한 지지에 적은 영향을 주고, 지역 애착심정도가 낮을수록 경제적·문화적 요인이 올레길 개발에 대한 지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심이 강한 지역민들은 제주 올레길 개발이 지역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애착심이 높은 지역민들에게 올레길 개발이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지역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애착심이 낮은 지역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보다 경제적인 혜택이나 올레길 방문객들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적 혜택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주 올레길은 사람들이 즐기고 이를 향유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문화로써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 그대로를 느끼기 위해 올레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고 이를 극대화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암시함으로 이러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고려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향후 올레길 코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적 영향과 올레길 개발지지 간에 지역 애착심이 상승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애착심이 높을수록 환경적 영향이 올레길 개발 지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애착심이 높을수록 지역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올레길 개발이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그 결과 지역민의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친환경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올레길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업그레이드된 생태문화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올레길 개발과 관련된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올레길 개발이 더 나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올레길이 현재 22개까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코스 지역의 주민들 의견만을 반영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국내의 다양한 도보 여행길 개발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는 국내에 있는 다른 도보여행길 지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역민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아 부정적 영향 요인들과 도보길 개발 지지간에 영향관계도 함께 고려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영미 · 김미주 · 김성섭(2010). 카지노 개발 이전의 기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식, 장소애착심, 카지노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사 간의 관계. 『관광학연구』, 34(5), 307-330.

김철원 · 이태숙(2010). 전라북도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관광학연구』, 34(2), 193-216.

문창현(2007). 생태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5(1), 71-94.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박시사 · 노경국(2010). 도보여행객의 여행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관광학회 2010년 제 68차 학술발표대회 전북/특별/일반 세션, 959-970.

박영아 · 현용호(2010).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3(7). 75-93.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백경진(2010). 제 9회 한국형 국토발전 현장포럼: 제주 올래길의 조성배경 및 운영현황. 『국토연구원』, 346호, 116-121.

양성수 · 허향진 · 서용건(2009).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4), 199-210.

이승구 · 최규성(2006). 강원도 폐강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관광연구저널』, 20(2), 189-200.

이지은(2010). 올레길. 『The Journal of Global Cultural Contents』, 5, 279-285.

이충기 · 강수경(2008). 애향심과 카지노 영향 · 혜택 · 지지도 간 상호관계 규명. 『호텔경영학연구』, 17(1), 235-248.

정봉섭 · 여정태 · 김재호(2011). 관광개발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와 통합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5(1), 125-144.

정철 · 노경국 · 문성종(2011). 도보관광객의 환경인식과 심리적 웰빙: 도보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비교. 『관광연구논총』, 23(1), 109-124.

허향진 · 현용호 · 허성철(2005). 주민참여의식에 따른 지역경제여건, 지각된 편익 · 비용, 관광개발유형간의 구조모델분석. 『관광학연구』, 29(3), 229-250.

현용호 · 김재학(2009). 관광동기와 관광목적지 선택 속성간 영향관계에 미치는 관광비용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 골프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2(6), 3563-3582.

Andereck, K. L., Valentine, K. M., Knopf, R. C., & Vogt, C. A.(2005). Resi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1056-1076.

Ap, J.(1992).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Butler, R.(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 5-12.

Deery, M., Jago, L., & Fredline, L.(2011). Rethinking social impacts of tourism research: A new research agenda. *Tourism Management*, 33, 64-73.

Dewhurst, H., & Thomas, R.(2003). Encouraging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in a non-regulatory environment: A case study of small tourism firms in a UK National Park.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5), 383-403.

Diedrich, A., & García-Buades, E.(2009). Local perceptions of tourism as indicators of destination decline. *Tourism Management*, 30, 512-521.

Dyer, P., Gursoy, D., Sharma, B., & Carter, J.(2007). Structural modeling of resident perceptions of tourism and associated development on the sunshine coast, Australia. *Tourism Management*, 28, 409-422.

Erkuş-Öztürk, H., & Eraydin, A.(2010).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Collaborative networks and organisation building in the Antalya tourism region. *Tourism Management*, 31, 113-124.

Gilbert, D., & Clark, M.(1997).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urban tourism impact. with reference to residetns attitudes in the cities of Canterbury and Guildford.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6), 343-352.

Gross, M. J., & Brown, G.(2008). An empirical structural model of tourists and places: Progressing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into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6), 1141-1151.

Gu, H., & Ryan, C.(2008). Place attachment, identity and community impacts of tourism: The case of a Beijing hutong. *Tourism Management*, 29, 637-647.

Gursoy, D. & Rutherford, D. G.(2004). Host attitudes toward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495-516.

Hair, J. F., Anderson, R. E., Taham, R. L., & Black. W. C.(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Haralambopoulos, N., & Pizam, A.(1996). Perceived impacts of touirsm:

The case of Samo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 503-526.

Harrill, R.(2004).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ourism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8, 251-266.

Hidalgo, M. C., & Hernandez, B.(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Kang, S. K., Lee, C. K., Yoon, Y., & Long, P. T.(2008). Resident perception of the impact of limited-stakes community based casino gaming in mature gaming communities. *Tourism Management*, 29(4), 681-694.

Ko, D., & Steward, W. P.(20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sidents' attitude for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3, 521-530.

Lee, C., Kang, S. K., Long, P., & Reisinger, Y.(2010). Residents' perceptions of casino impacts: A comparative study. *Tourism Management*, 31(2), 189-201.

Liu, J., & Var, T.(1986). Resident attitudes towards toruism impacts in Hawaii. *Annals of Toursm Research*, 13, 193-214.

Rigall-I-Torrent, R.(2008). Sustainable development in tourism municipalities: The role of public goods. *Tourism Management*, 29, 883-897.

Sheldon, P. J., & Var, T.(1984). Resident attitudes to tourism in North Wales. *Tourism Management*, 5, 40-47.

Sirakaya, E., Teye, V., & Sonmez, S.(2002). Understanding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in the central region of Gha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 57-67.

Teye, V., Sonmez, S. F., & Sirakaya, E.(2002).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3), 668-688.

2011년 10월 4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1년 10월 25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통보
2011년 12월 7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룍